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13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125:1-2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16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28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의 교회들과 주님의 백성들이 알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와 전달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를 남용하고 악용함으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여기면서까지 교단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저희의 죄로 여기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모든 영역이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갈라디아서 5:13-15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그리스도인의 자유”

봉 헌(offering) 6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202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예배 후에는 추석을 맞아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교우동정
 - 한국방문 : 석명선집사님

<기도제목>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어서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 전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식량공급에 차질이 생겨 빈곤과 기아의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하나님의 공휩과 은혜가 임하시도록
- 미국 대법원의 낙태법 판례 폐지 이후 주 정부와 의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그리고 처음 헌신했던 마음을 늘 지키며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 모든 성도님이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박한숙 성도님(좌골신경통 및 빈맥증) / 서희숙권사님(항암치료중)

<말씀묵상> 갈라디아서 5:13-15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며,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13절) 나는 이 부르심을 확신하며,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 모든 율법은 결국 어떤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14절)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율법 행위주의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구원을 완성코자 하는 미혹으로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런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율법행위주의가 그럴듯하게 생각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과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규례들과 의식, 특정한 행위들은 자신이 더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듯한 착각을 가져다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더 많은 헌신과 수고, 그리고 경건의 행위들을 통해 자신이 더욱 의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역중독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객이 전도되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목적과 의미도 잃어버린 채 행위자체에 얽매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온 거짓 교사들과 같이 외부적인 요소를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잇기 시작할 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남용하여 다시 자기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율법행위주의는 에덴동산의 선악과처럼 손만 뻗치면 자신을 의롭게 해줄 것 같은 강력한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율법행위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기에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율법행위주의는 그 동기가 이기심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면서 더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남보다 우위에 있어 누군가를 가르쳐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이로 인해 주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잔소리 같은 설교를 들어야 하고, 마음에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행위주의는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아주 무서운 신앙입니다. 나는 혹시 이런 유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늘 십자가를 보고, 이웃을 볼 때마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미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